

# 한마음 한몸

2014.10  
통권 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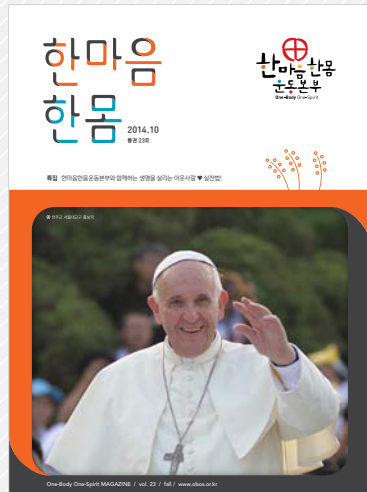
특집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함께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웃사랑 ♥ 실천법!



©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국



## COVER STORY



©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국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 복음의 기쁨 57 ]

통권 23호 / 가을

# 한마음한몸

발행인 유경춘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발행일 2014년 10월

디자인 slowalk

주소변경 및 문의 | 후원관리팀

T 02 727 2288 E obos@catholic.or.kr

## CONTENTS

### 테마스페셜

03 한마음 한몸으로 \_ 한마음 한몸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06 SPECIAL STORY \_ 생명을 살리는 이웃사랑♥실천법!

### 아주 특별한 경험

08 현장을 가다 \_ 띠앗누리가 씨앗이 되어

10 OBOS Family \_ 더불어 사는 것을 조금, 아주 조금 배웠을 뿐이에요

### 희망과 만나다

12 희망공작소 \_ 생명의 존엄성을 확대하기 위한 연대와 상호협력

16 OBOS Hope Maker \_ 한 생명을 살리는 일. 주저할 것이 없지요

### 공감하는 세상

18 나눔가게·나눔기업 \_ 사랑을 나누는 나눔가게·나눔기업!

20 생애첫기부 & 기념일기부

### NEWS +

22 OBOS NEWS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한마음한몸**은 후원자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한마음한몸**의 내용은 인터넷(www.obos.or.kr)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 © 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닫아 버리면,  
하느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1요한 3, 17]





# 한마음 한몸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으로 선출된 후 아시아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 한국 사회는 그 파급 효과에 대해 많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함께 한 1984년 '103위 한국 순교 복자 시성식'과 1989년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교황의 방한은 한국 천주교회의 국내외적 위상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또한 우리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가져다주리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도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 설립되었기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 이후 본부도 또 한 번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하고 소외 되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아버지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손을 맞잡아줄 때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졌으며, 모든 사람들을 향해 보여주시는 미소와 인자한 모습에 힘겨운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高揚)되는 교황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자신이 머리를 낮추는 일이 어떻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연

스레 머리를 숙이도록 하는지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2013년 즉위 이후 이미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소년원을 방문해 수감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나, 성 베드로 성당 인근 노숙자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4박 5일간 이어진 교황의 행보와 말씀 중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되풀이된 메시지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였습니다. 나눔이 단순히 물질적 지원이나 자선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한 연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회, 직업, 교육 수준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활동 중에 경계해야 할 것도 지적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사업적인 차원으로 바라보지 말며, 힘든 상황에 빠진 이들도 하나의 엄연한 인격체로 바라볼 것을, 그리고 이들의 인격과 창의력과 문화를 존엄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황의 권고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한국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선조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나'보다는 '주변'을 살펴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가  
난  
한  
사  
람  
들  
과  
의  
연  
대





##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웃사랑 ♥ 실천법!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대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생명사랑, 나눔활동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나눔과 기부는 우리사회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실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이웃을 돕는 쉽고도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

 <b>장기기증희망 신청</b>	장기기증희망신청,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 홈페이지: <a href="http://www.obos3042.or.kr">www.obos3042.or.kr</a> ★ 장기기증 신청문의: 1599.3042(생명살이)	 <b>지구시민교육 (따앗누리)·봉사활동·재능기부</b>	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인 곳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물질적인 나눔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마음을 나누어요.	★ 문의전화: 02.727.2286
 <b>조혈모세포기증 희망 신청</b>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이식은 마지막 희망이고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꺼져가는 한 생명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세요.	★ 관련문의: 02.727.2268	 <b>생애첫기부</b>	돌 생일등 아이의 잔칫날 떠들썩한 잔치를 열어주는 대신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부해 주세요.	★ 관련문의: 02.727.2267
 <b>헌혈 및 헌혈증 기증</b>	경제적으로 어렵고 수혈이 시급한 환자들에게 당신의 헌혈로 단비를 내려주세요.	★ 관련문의: 02.727.2268	 <b>기념일 기부</b>	생일이나 입학과 졸업, 취업 등 생애 뜻깊은 날 자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눔의 기쁨을 선물해보세요.	★ 관련문의: 02.727.2267
 <b>자살예방 전화·사이버 상담 후원</b>	삶의 어려움으로 자살의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80-307979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위기상담전화: 1599.3079(생명친구) ★ 사이버상담: <a href="http://www.3079.or.kr">www.3079.or.kr</a>	 <b>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 참여 (정기후원참여)</b>	100원짜리 동전이 모여 빈곤한 국가 어린이의 한 끼 식사가 되고,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의 치료비가 됩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에 희망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 관련문의: 02.774.3488
 <b>장기이식대기자 치료비 후원</b>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수술기회가 오더라도 비용이 없어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 관련문의: 02.774.3488 ★ 후원계좌: 하나은행 850-910006-09104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b>나눔가게·나눔기업</b>	1년이상 정기적인 후원(금액무관)을 해주시면 나눔가게·나눔기업 현판을 보내드립니다.	★ 관련문의: 02.727.2263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1-166291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b>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치료비 후원</b>	치료비가 없어서 생명을 잃어가는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 관련문의: 02.774.3488 ★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44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b>유산기부</b>	유언을 통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으로, 남겨주신 유산은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사용됩니다.	★ 관련문의: 02.727.2294
 <b>지구촌 빈곤퇴치 기금 후원</b>	빈곤을 지나간 역사로 만드는 일, 불가능 하지 않습니다.	★ 관련문의: 02.774.3488 ★ 후원계좌: 하나은행 850-910006-09104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b>ARS 후원·신한카드 포인트 기부</b>		★ ARS 후원: 060.700.1117(한 통화당 3,000원) ★ 신한카드 포인트 기부: <a href="http://www.arumin.co.kr">www.arumin.co.kr</a>
 <b>해외 긴급구호 기금 후원</b>	해외지역의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구호활동을 위해 지원합니다.	★ 관련문의: 02.774.3488 ★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45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b>페이스북·홈페이지</b>	좋아요를 누르고 인터넷으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나눔운동을 널리 알려주세요.	★ 페이스북: <a href="http://www.facebook.com/oboscorea">www.facebook.com/oboscorea</a>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a href="http://obos.or.kr">obos.or.kr</a> ★ 해피빈: <a href="http://happylog.naver.com/obos.do">happylog.naver.com/obos.do</a>



한마음한몸운동본부  
NGO 활동가가 된

4인

## 띠앗누리가 씨앗이 되어

‘형제자매 사이의 우애 있는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 ‘띠앗누리’

2004년부터 시작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구시민교육프로그램인 띠앗누리 활동이 올해로 10년이 되어간다. 올해로 18기까지, 그동안 참여한 이들도 360여명에 달한다. 띠앗누리 활동에 참여한 이들은 나눔과 봉사의 실천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본부의 정신에 입각해, 지구촌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리고, 여기 또 놀라운 변화를 소개한다. 2006년 띠앗누리 4기 멤버로 참여한 계기로 현재 본부의 NGO 활동가로 변모한 4인이 바로 주인공이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팀의 김다혜씨(아네스, 30), 지역개발사업과 지구 시민 양성을 돕고 있는 박진솔씨(아네스, 28), 후원관리를 하고 있는 이혜진씨(크리스티나, 30), 그리고 모금 담당자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정문선씨(보나, 28). 이들은 지금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직업인으로서, 서로 동료가 되어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 이들은 해외 봉사활동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호기심과 도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3기 띠앗누리의 해외활동 모습이 멋있어 보여 자신도 나눔을 몸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몽골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14박 15일의 일정을 통해 진로를 선택하게 될 씨앗을 틔웠다.

정문선씨는 “몽골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는 ‘함트(함께하자는 몽골말)’였어요. 밥 먹을 때도, 조별 활동 시간에도 언제나 ‘함트, 함트.’ 그렇게 우린 모든 것을 함께했어요.”라며 10년 전 그 시간을 회상했다. 돼지축사를 짓고, 학교를 방문에 현지의 청소년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고되고 힘든 일정 속에서도 이들은 몽골 친구들과, 또 한국에서 함께 간 단원들과 하나가 되어갔다.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던 제가 스무 살 초반, 띠앗누리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넓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김다혜씨는 봉사나 나눔이 남을 위하는 일이라는 생각에서 결국은 스스로가 더 많은걸 배우고 얻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후에 국제개발협력분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띠앗누리 활동으로 이들 4인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었고, 모두가 ‘함께’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에 대해 질문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진 계기가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에도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오로지 돈을 버는 일보다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진정한 나의 역할을 생각했다. 대학교 3학년 때 띠앗누리4기를 다녀오고 4학년

때 다시 학생스텝으로 띠앗누리5기에도 참여했던 이혜진씨는 전공을 살려 일반 기업에 취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을 하는 목적과 열정, 동기를 찾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면서 단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해야 하는 것에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때 떠오른 것이 띠앗누리였어요.” 어느 날 퇴근 후 본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힘들기는커녕 기쁨으로 가득한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바로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망설임 필요가 없었다. 바로 본부에 직원으로 지원을 했다. 원하는 일은 한다는 생각에 야근을 해도 힘든 줄 모르고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지구촌 사람들이 폭력, 빈곤, 기아, 그리고 자연재해로 속수무책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볼 때면 또 다른 무게를 느끼곤 한다. 또 가진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이들이 나눔에 인식할 때면 안타깝기도 하다.

“내 것을 지키느라 두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다른 것들을 잡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처럼, 나눔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면, 그 이상으로 세상은 변화하고 또 그 변화가 결국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아닐까요?”

이들은 행복할 때가 훨씬 많다. 마을버스 비용을 아껴 저금통을 나누는 사람, 돌잔치 비용을 절약해 기부를 하는 이들을 보면서 활동가로서 자신들의 활동이 작지만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음에 보람을 느낀다. 박진솔씨는 동료나 지구촌 이웃들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부심도 느낀다고 전했다.

이들 4인은 직장 동료 이상의 끈끈함이 있다. 서로의 성격이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어서 업무를 할 때도 서로 도움을 많이 받는다. 4명이 다 같이 모이기는 힘들지만 두세 명씩 틈틈이 주말에 만나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여행을 같이 가기도 한다. 일반 직장이었다면 회사동료를 주말까지 만나고 싶진 않을 일인데, 이들은 쉬는 날이면 그냥 친구, 동생이 된다. 기쁨은 2006년 몽골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서로 깔깔거리기도 한다. 촌스럽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해서.

10년 전 인연으로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고 있는 이들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오늘도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 OBOS



## 더불어 사는 것을 조금, 아주 조금 배웠을 뿐이에요

● **오소영** | 네팔에 가야할 이유는 명확했다. 나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국제협력에 대해 공부할 예정이었고, 후에 ODA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필요했다. 다시 말하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쓸 경험이 필요했었다. 나는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피앗누리 18기에 지원했다. 그러나 네팔에 도착하고 한 주가 지날 즈음, 나는 그곳에 가야했던 이유를 전면 수정해야 했다. 생각대로 되는 일은 없었다. 사소하게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눕기까지도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협동! 그것은 비단 우리 피앗누리 팀 내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의 사이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 삽질을 할 때도 심지어 어린 아이들의 작은 손이 필요했고, 문화교류를 할 때에는 해피홈 선생님들에게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소통을 부탁해야 했다. 늘 감사히 먹었던 저녁 역시도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몸소 느끼는 과정이었다.

곧이어 협동의 중요성을 넘어 깨달은 것은, 내가 이곳에 도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도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미약했다. 하다못해 언제나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그들에 비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던 나는 미소를 짓

는 것조차 그들보다 가난했다. 힘들게 진행되던 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미안함 뒤에,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후회까지 겹쳐 나는 절박하게 기도했다. 아마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다.

네팔에 다녀온 뒤로 내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로 탈피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여전히 조금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다만 더불어 사는 법을 몸소 배운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것은 분명하다. 해피홈에서의 2주는 '우리'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내 손길도, 내 기도도 아마 이 빈민촌의 삶을 바꾸는 데는 미약한 것이리라! 그렇지만 내가 2주 동안 그곳에서 배운 배려와 존중, 희망, 관심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씨앗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귀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경험을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천천히 내일을 준비한다.



● **이한석** | 이번 피앗누리 활동은 내 인생의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처음 면접 땀 난 꿈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24세 청년이었다. 그리고 활동 전까진 난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었다. 어떤 일에서든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스스로를 비하했다. 타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진 않았다. 머리로의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고 또 나 자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성공하는지, 그러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자부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무언가를 실행하지 않은 채 자수성가를 하겠다는 욕심만 앞서곤 했다. 그래서 타인, 부모님의 도움조차 받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는 생각에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반복되는 탈선, 외부의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되면서 내가 가야할 길에 못을 뿌려놨었다. 그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현재에 안주하며 '이 정도면 먹고 살 만하지.' 라는 안일한 생각에 발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피앗누리 활동을 통해 나는 정말 많이 변했다. 네팔에서의 피앗누리 활동으로 나는 단원들과의 소통과 대화 방법을 알 수 있었고,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또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취해야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



할 때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을 어렵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현지주민들로부터는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는 행복을 배웠다. 그들과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나보다 훨씬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항상 웃으며, 이웃들과 교류하고, 외지인인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인사를 건네는데 인색하지 않은 모습이 지금도 떠오른다. 내가 그들에게 해 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들이 그곳 네팔에서 했던 활동에 감사해하며 환대해 주던 마을 주민들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어른거린다. 문화 교류할 때 우리를 '티쳐'라고 부르던 해맑은 아이들, 손 한 번 잡고 싶어서 다가오고, 한 번만 안아달라고 밤늦게까지 보채던 아이들, 일과가 끝난 후에도 해피홈 앞에서 서성이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보며 나도 덩달아 순수해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나는 누군가에게 짜증내고 정체가 되었던 내 자신을 반성하기도 했다.

매일 저녁 단원들과 모여 함께 했던 '떼제'는 모두들 앞에서 하는 자유기도였지만, 나는 그때마다 하느님과 단들이 대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 한 구석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서 행복했다. 또 이를 동안의 트래킹을 통해서도 잊고 살았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곤 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네팔 포카라 올드버스파크의 아이들과 만나고 싶다. ☎



## 가톨릭생명운동전국네트워크

#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연대와 상호협력

### 보시니 참 좋았다 [창세 1,31]

요즘 모 방송국의 아내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연예인 아 빠의 육아도전기를 그린 프로그램이 큰 인기입니다. 프 로그램에 나온 아이들은 아이들에 버금가는 폭발적인 인 기를 누리며, 미혼의 삼촌팬과 이모팬까지 양산하고 있 다고 합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들의 모습에 폭 빠지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린 아이들에게서 전해지 는 선하고 아름다운 기운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 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따뜻하고 보드라운 몸을 껴안음으로써 큰 위로와 희망을 얻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것 이 생명의 힘입니다!

### 생명을 택하여라 [신명 30,19]

생명은 아름답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은 흠없는 선함 그 자체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느님은 ‘너희 와 너희 후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살기위해 생명을 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 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자살율, 빈번하게 이뤄

지는 시험관아기기술, 매스미디어를 통한 쾌락적인 성문 화의 확산 등 반생명적인 풍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경각심은 점차 무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 니다. 이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일이 되고 있습니다.

### 생명을 위하여

생명수호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산하 생명운동본부는 2009년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 후 각막기증을 계기로 우리사 회에 장기기증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전국 교구에 장기기 증 담당부서를 마련하여 구축한 ‘가톨릭장기기증전국네 트워크’의 운영경험과 (재)바보의 나눔의 지원금을 바탕 으로 2012년 <가톨릭생명운동전국네트워크>를 구축하 였습니다.

<가톨릭생명운동전국네트워크>에서는 사순시기에 전국 의 모든 교구가 공동으로 장기기증을 비롯한 범국민 생 명나눔캠페인 ‘희망의 씨앗심기, 생명나눔! 제가 하겠습 니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미혼모부자 가정 자 립지원, 세월호 사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생명 수호를 위한 교육 및 문화행사 등 각 지역의 상황과 특 성에 맞춰 다양한 생명수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업내용

사업 1~2년차에는 장기기증운동에 국한하여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2~3년차인 현재, 성교육을 비롯한 생명윤리교육,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등 생명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01. 생명나눔운동

전국 교구가 사순시기에 동일한 홍보 콘셉트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업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고 있음.

#### ★ 생명나눔 방법

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 헌혈, 제대혈기증

### 02. 생명수호행사

#### ★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를 위한 행사(서울, 광주)

#### ★ 기타 생명수호를 위한 행사

생명대행진(서울, 마산), 생명수호 도보성지순례(광주, 2015), 생명의 밤(마산), 가리파스한생명대축제(대전), 가정생명대축제(전주, 2015)

### 03. 생명교육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 청소년 생명교육, 청년 생명교육, 예비부부 생명교육

★ 생명나눔교육: 본당, 기관 등

★ 본당 사목위원 교육(대전, 2015 예정)

본당 회장단, 생명분과장

★ 청소년 틴스타 성교육 및 성교육 강사양성 (마산, 2015 예정)

### 04. 생명운동 봉사자 양성

### 05. 생명돌봄 서비스

#### ★ 수원교구

안산지역 세월호 희생자 상담프로그램, 안산시민 정신건강 강좌(2015 예정)

#### ★ 인천교구

독거노인 말벗 지원(2015 예정),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장기이식대기자 지원사업 및 백혈병어린이 헌혈증 지원사업

#### ★ 서울교구

· 환우지원사업: 백혈·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지원사업, 장기이식대기자 지원사업

· 헌혈증 지원사업: “산타가 되어주세요”

(내용: 소아병동 환아들을 위한 성탄선물 지원)



# 활동사진 2013~2014



© OBOS



© OBOS



© OBOS



© OBOS



© OBOS



© OBOS

## 01. 장기기증희망자 모집캠페인

- ① 광주교구 두암동성당
- ② 대전교구 한생명운동\_01
- ③ 대전교구 한생명운동\_02

## 02. 생명교육

- ④ 대구대교구 나이팅게일  
장기기증봉사단 교육
- ⑤ 마산교구 자살예방교육

## 03. 생명수호행사

- ⑥ 서울대교구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 ⑦ 청주교구 생명콘서트



© OBOS





두 번의 조혈모세포 기증, 대화마을성당의 서근수 신부를 만나다

## 한 생명을 살리는 일, 주저할 것이 없지요

다시 한 번, 서근수(비오) 신부에게 조혈모세포 일치자가 있으니 조혈모세포 기증을 하겠냐는 연락이 왔다.

‘아! 또 한 번 하는구나.’

조혈모세포 기증은 기증자와 환자 사이에 ‘조직 적합성 항원’(HLA, Human Leukocyte Antigen)이 완전히 일치해야만 가능한 일. 비혈연자간에는 일치 확률이 2만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처음 기증은 말초혈 기증으로 가능하여 6시간 정도를 헌혈하듯 누워있으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을 한 번 했던 사람은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를 기증해야만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었기에 주저할 일이 아니었다.

서근수 신부는 2004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신청자로 이름을 올린 후, 칠레에서 빈민 사목을 하고 있던 2009년에 이미 한 번의 연락을 받아 조혈모세포를 기증했었다. 그 당시 칠레와 한국 사이에 병원끼리 결연이 맺어져 있

는 것도 아니어서 혈액을 보내는 절차가 복잡했지만 조금도 지체할 일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조혈모세포 기증 절차를 밟았다. 유전자형 정밀검사를 위한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칠레대학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소포로 채취한 혈액을 한국으로 보냈다. 그렇게 9월에 연락을 받고 3개월 후 수여자에게 조혈모세포를 나누어 줄 수 있었다.

2010년 12월 칠레에서 귀국한 이후 대화마을 본당의 신부로 부임한 서근수 신부에게 3년 뒤인 2013년 12월, 두 번째로 서신부의 HLA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이 닿았다. 이번에는 직접 골수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해야 한다는 말에, 주변에서는 걱정도 많았다. 특히 서신부의 어머니께서는 걱정을 이만저만 한 게 아니었다.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씩이나 하느냐고 하시며, 기증하고 난 후에 몸이 안 좋아질까 말리기도 했다. 하지만 서신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기증하고 혹시 힘이 빠지

고 조금 아픈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고 당연한 일이라 말했다.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우려는 자신의 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혹시 기증받는 사람의 상태가 좋지 않아 기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 노심초사했다.

나눔, 특히 생명을 나누는 일은 서근수 신부에게 매일의 기도 안에 빠지지 않고 있어온 하나의 가치이다. 사람을 살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기도한 지는 꽤 오래되었다.

“일본 전철 선로에서 사람을 구하려 뛰어 들었던 한국인 청년 이수현이 있잖아요.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두 번째 조혈모세포 기증 날이 2014년 5월로 잡혔다. 하지만 서신부의 우려대로 수혜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7월 2일, 서 신부는 수술실로 향했다. 막상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하느님, 제 한 몸 지금 가더라도 잘 받아주시고 좋은 일하다 죽는 것이니 받아주십시오. 혹 죽음이 오더라도 남겨진 사람들은 잘 울고 끝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하하하(웃음)! 혼자 드라마를 쓴 거죠.”

고맙게도 서 신부가 첫 번째로 조혈모세포를 나누었던 소년은 이제 완치판정을 받았다. 또 두 번째로 생명을 나누어준 이는 서신부의 조혈모세포가 몸 안에 잘 정착되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말 그대로 두 생명을 살린 것이다. 서신부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기증한다고 날짜까지 잡아 놓고 안하게 되면 수혜자를 죽이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수혜자는 기증자의 세포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세포를 거의 회복이 어렵게 약화시킨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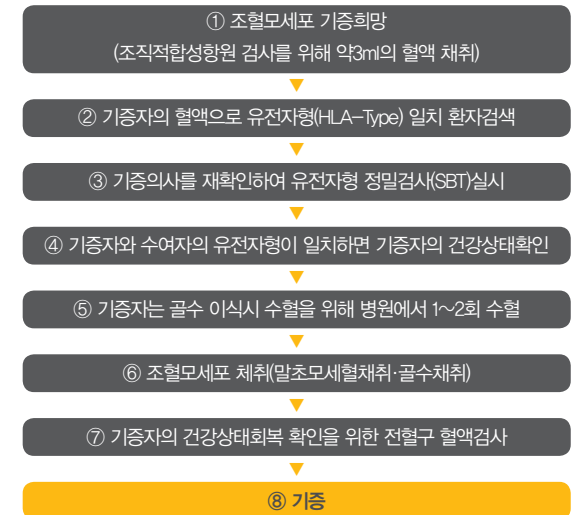
서근수 신부의 마음은 언제나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가난한 곳을 향하고 있다. 2002년도 6월에 가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는 8년 반 동안 칠레에서 사목활동을 했다. 범죄와 마약, 가난 속에 빠진 이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은 언제 어디서든 기쁨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평소 생각을 거친 현실 안에서 몸소 실천했다. 그에게 실험이었고 도전이었다. 혼자 밥하고 빨래하고 주변의 도움 없이 독립적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다. 또 그런 삶이 하느님이 서신부에게 불어넣어주신 소명이라 생각했고, 권력도 힘도 없는 빈민들과 함께 하며 그는 하느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알게 되었다. 요즘도 서신부는 다시 꿈꾸고 있다. 남미나 아프리카로 날아가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

“앞으로의 계획이요? 한 번 더 조혈모세포 기증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을 세 번이나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요. 조금의 아픔을 참고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누가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록은 깨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네 번 할 수 있다면 말이지요.”

서근수 신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대화마을 성당 안에 오래오래 퍼졌다. ⊕

### 조혈모세포 이식조정 절차





# 사랑을 나누는 나눔가게·나눔기업!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이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 또는  
고객들의 성금을 전달해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가게·기업입니다.”

우리 이웃의 가게, 기업에 福이 밀려옵니다. 나눔가게·기업에 참여하세요.  
나눔의 참 행복을 느껴보세요.



사랑을 나누는 나눔가게 나눔기업!

가게나 기업 이름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나눔가게 나눔기업 현판을 보내드립니다.

2014년 9월 현재 160여 곳이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약 150여 가게와 기업이 나눔 활동 중입니다!

본부가 인증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와 기업!  
사랑을 나누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2014. 4 ~ 2014. 8]

가게의 규모와 종류는 다르지만 행복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만은 똑같은 나눔가게·기업 신청시 예쁘게 디자인된 현판과 전용 저금통,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카운터 및 입구에 나눔현판을 부착하시면 나눔의 의미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나눔가게·나눔기업은 본부가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펼치는 특별기부 사업에 동참하는 사업장입니다. 본부에 예비 나눔가게·기업으로 등록한 뒤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하거나 연간 1,000만 원 이상 기부한 사업장은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됩니다. 나눔가게·기업으로 선정되면 벽에 부착할 수 있는 나눔가게·기업 현판을 보내드리고 정기적으로 모아주신 기부금은 지구촌 빈곤 퇴치와 긴급 구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와 자살 예방 사업 지원 등 본부의 다양한 생명·나눔 운동에 지원됩니다.

※ 참여문의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727.2263  
전화주시면 간단하고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33호점	경기 양주시 삼송동	(주)루이빌스 C.C
134호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주)웨이브텍코리아
135호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스모 코리아
136호점	서울 광진구 화양동	유진감자탕
137호점	전북 진안군 진안읍	삼성영어&개념원리 수학학원
138호점	서울 중구 을지로6가	타올마당(한미송월타올직영점)
139호점	서울 구로구 구로동	(주)모바일 타운

140호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예술공작소 피아노 연습실
141호점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주)에버트란
142호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이편한안경
143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2동	현대헬스
144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2동	보광당
145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2동	골목집
146호점	서울 송파구 가락동	동남공인중개사

147호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다진도에 은하꽃방
148호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농협 한삼인 월곡점
149호점	경기 원미구 심곡동	김밥천국 부천점
150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2동	영산송가
151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2동	박경숙 맛집
152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2동	포향과메기
153호점	서울 송파구 구여동	다이소 거여점

154호점	서울 송파구 송파2동	이레미용실
155호점	부산 기장읍 청강리	휴모텔
156호점	서울 광진구 군자동	웰리스패션마트
157호점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참좋은부동산
158호점	인천시 남구	던킨도너츠 문학야구장점
159호점	서울 강동구 둔촌2동	정다운약국
160호점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서울약국

※ 현재 약 160여 예비 나눔가게·기업이 후원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기업이 되시려면 소정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종교계 협력체계 구축 위한 실무자 간담회 참석



지난 7/16(목), 서울 중구 정동에서, 자살예방 종교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1차 실무책임자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 종교계의 자살 예방활동 대표기관인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불교(불교상당개발원), 개신교(라이프 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와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실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종교계가 연합, 범국민적 활동 계기를 마련하고자 모인 이 자리에서는 ‘실무책임자협의체 발족’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센터장 손애경 수녀)가 9/1(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한국자살예방회회가 주관한 ‘2014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기관상 부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센터는 지난 2010년 3월 설립 이후 교구 및 대사회적 협력망의 유기적 구축,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자살예방활동가 교육, 심리지원 서비스 등의 사업을 통해 생명존엄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에 공로를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 생명사랑캠페인 개최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9월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9/1(월)~2(화) 양일간 세종대 컨벤션센터 광개토관에서 생명사랑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지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잊기 쉬운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프로그램과 족에서 찍은 사진을 조그마한 액자에 넣어 아버지들에게 선물하는 ‘아빠 사랑해요’ 액자 및 소중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쿠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많은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장기기증센터 서울특별시 표창수여



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설 ‘가톨릭 생명나눔센터’ 이전개관

명동성당 종합개발계획 1단계가 완공됨에 따라 그동안 가톨릭회관 내에서 임시운영되던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를 신축 건물 지하로 이전하여 운영합니다. 다시 새롭게 개관하는 센터는 ‘장기기증센터’에서 ‘생명나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기기증운동을 비롯한 조혈모세포기증운동 등 전반적인 생명나눔에 대한 홍보 및 기증희망자 모집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명동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지구시민교육



몽골·캄보디아 현장방문



지난 7월 KOICA(한국국제협력단)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와 몽골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본부는 지금도 현지에서 활동하는 JSC(Jesuit Service Cambodia)와 몽골 메리워드 청소년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빈곤을 없애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구시민교육프로그램 떠났누리 18기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떠났누리 18기가 지난 7/25(금) 해단식을 끝으로 모든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해단식 때 이들은 지구시민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떠났누리 18기는 빈곤, 인

치료비 지원사업  
2014. 6 ~ 9  
단위: 만 원  
바른 배움을 바랍니다.

구분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백혈병·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사업	황○○(남/23세)	뇌종양	국립암센터	1,000
	이○○(남/21세)	말초성T-세포 림프종	서울성모병원	900
	박○○(여/12세)	황문근육종	국립암센터	900
	서○○(여/12세)	재생불량성빈혈	서울대학교병원	1,000
	박○○(여/16세)	황문근육종	국립암센터	1,000
장기이식 대기자 지원사업	박○○(남/23세)	혈막육종	국립암센터	900
	강○○(여/51세)	간암(간이식)	고대안암병원	800
	김○○(남/50세)	만성신부전(신장이식)	의정부성모병원	800
	한○○(남/45세)	간경화(간이식)	부천성모병원	900
	강○○(남/52세)	말기신장병(신장이식)	의정부성모병원	900
간급환우 지원사업	고○○(남/72세)	후두암	한림대성심병원	350
	조○○(남/36세)	안와골절	목포한국병원	300
	서○○(여/39세)	다발성 경화증	국립암센터	600
	김○○(여/58세)	뇌교부 뇌경색	목포한국병원	700
	김○○(남/47세)	육종암	국립암센터	400
	동○○(남/37세)	금성골수모세포소성백혈병	국립암센터	400
	김○○(남/35세)	신장암	국립암센터	550
	하○○(남/38세)	대장암	부천성모병원	700

9/12(금) 서울 계성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구시민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빈곤, 인권과 같은 글로벌이슈를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풀칠하는 곳

KONOS

등록번호

장기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나는 이웃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장기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이름

세례명

본당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 장기기증 등록증 발송을 위해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이동전화

정보수신여부

☐ 전자우편

☐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 우편물

☐ 이메일

기증형태

☐ 뇌사 시 장기기증

☐ 안구(각막) 기증

☐ \*종목 선택 가능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이식에관한법률 제 15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법정대리인의 동의 | 이름

(서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① 신청인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1부

하루 100원 모으기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

이름

세례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 3,000원

☐ 10,000원

☐ 30,000원

☐ 기타

원

출금일자

☐ 매월 5일

☐ 매월 20일

\* 출금통장에 한마음한몸 이라 표시되며, 매달 약정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연말 소득용 납입영수증 발급됩니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주명

계좌주 주민등록번호

계좌주

\* 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데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약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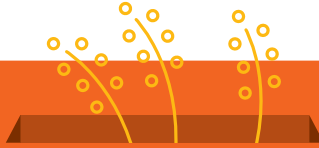
\*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풀칠하는 곳



# 소중한 100원, 큰 나눔의 씨앗입니다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 | 100원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사랑과 나눔이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I DO! 제가 하겠습니다.

One-Body One-Spirit MAGAZINE / vol. 23 / fall / www.obos.or.kr

## 100원짜리 동전 하나에 희망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하루100원모으기운동'은 한미한금운동의 일환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1년 365일 나눔 실천 운동입니다. 1989년 제 44차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작된 한마음한몸운동의 토대가 되는 한미한금운동은, 매 끼니마다 '한줌의 쌀'을 이웃의 몫으로 봉헌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나누고자 했던 선조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 2003년 9월부터 한미한금운동을 '하루100원모으기운동'으로 더욱 활성화하여 우리 생활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100원으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과 지역을 대상으로 빈곤을 퇴치하고, 여러 개발사업을 통해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높여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치료비가 없어 생명의 위협에 놓인 이들을 위한 생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들을 돕는 것의 시작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100원이라는 작은 씨앗입니다.



### 우 편 엽 서

보내는사람

---



---

-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13호  
T 02.774.3488 F 02.776.7879 H www.obos.or.kr